

## 국문논문지 개편과 관련하여

조 옥<sup>1,2</sup> 

<sup>1</sup>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편집위원장

<sup>2</sup> 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 Editorial Announcement Regarding Restructuring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Wook Jo<sup>1,2</sup>

<sup>1</sup> Editor-in-Chief,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Seoul 06130, Korea

<sup>2</sup>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Ulsan 44919, Korea

(Received August 4, 2021; Revised August 13, 2021; Accepted August 13, 2021)

학회의 출발과 함께 했던 우리학회 국문논문지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가 어느덧 발간 3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논문지에 전기전자재료 분야의 우수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우리 학회와 국문논문지가 매우 큰 몫을 해낸 것 같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발전을 향한 더 큰 한 걸음을 위해 그 임무가 막중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선 전임 편집위원장님들과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임원님들과 모든 회원님들께서 국문논문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2021년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에 참여해주신 16명의 편집위원님들과 류정호(영남대 교수) 편집부위원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문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 Wook Jo; [wookjo@unist.ac.kr](mailto:wookjo@unist.ac.kr)

우선 지난 4월 편집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투고자들의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위한 대대적인 행정적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 원고 제출 파일을 한글 파일에서 MS워드 파일로 변경 2) 초록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3) 우리저널 Endnote Style 제공 4) 논문 양식을 Free Style로 변경 5) 더블 블라인드 심사에서 싱글 블라인드 심사로 변경 6) 2022년부터 출판물 인쇄 및 구독 서비스 종료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문지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 제고방안으로, 우리 국문논문지가 분야를 막 시작한 초년 연구생에게서부터 분야를 이끄는 선배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연구자를 아우르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널 구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4권 3호(5월호)부터 전기전자재료 각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분들을 초청하여 초년 연구생들이 각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스스로의 연구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슈당 2편의 ‘Review Paper(개편 후 Academic Progress Report)’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4권 5호(9월호)를 시작으로 Review Paper와 Regular Paper로 이분화되어 있는 체계를 다변화한 아래의 체계로 최종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 1. Review Paper

- 1.1 Academic Progress Report: 기성 연구자들이 각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 소개 및 화두를 제시
- 1.2 Tutorial Status Report: 이론적으로 접해 온 다양한 실험 및 측정 설비들에 대한 셋업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튜토리얼 형태의 논문

## 2. Research Article

- 2.1 Regular Paper: 일반 연구 논문
- 2.2 Early Stage Report [Graduate Research(일반) / Undergraduate Research(학부생)]: Regular article을 구성하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학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 비록 실패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향후 올바른 실험 진행을 위해 유의한 결과 및 학부생 경진대회 최우수 발표상 수상작 등을 letter 형식으로 구성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초입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투고 폭의 확대'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한 저널을 통해 우수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저널의 영향력 지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연구자들 또한 '좋은 논문을 영향력 있는 저널'에 게재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연구자 평가 시스템이 이런 상황을 더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의 기다림 그리고 연구자의 경력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초입 연구자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화하는 연습의 기회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목한 것은 이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커뮤니티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고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Early Stage Report*)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Early stage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학부생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을 마련(*Early Stage Report-Undergraduate Research*)하고자 했습니다. 학부생들의 논문 투고에 대한 장벽이 높다 보니, 연구실에 있는 학부생 연구자들이 스스로의 결과를 차분히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문으로 투고가 가능하고 letter 형식이라 Regular Paper보다 구성이 가볍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적고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입 연구자들이 가장 당황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실험 셋업 및 물성 측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튜토리얼 형태의 새로운 구성 시도(*Tutorial Status Report*)입니다. 처음 실험실에 입문한 초보 연구자들이 실험실 선배들에게서 귀동냥으로 듣고 익혀 나가는 부분을 국문지를 통해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셋업 및 측정/분석 대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쉬운 설명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 및 후배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개편되는 국문논문지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ORCID

Wook Jo

<https://orcid.org/0000-0002-7726-3154>